

##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 제33과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 계시(징조들)

[마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언젠가 생이 마감할 것을 아는데, 언제나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수명이 다하듯이 역사도 수명이 다하는 때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와 신앙의 사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사상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계기로 세상의 끝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질문하였다.

제자들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확인해보자.

#### 1. 세상의 장래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점쟁이도 있고 점성술사들도 있고 예언가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이 궁금하였다.

[단2: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이 장래 일을 생각하다가 세상의 장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 꿈은 이미 공부한 사실이다. 이 꿈의 결론은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이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는 기별은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이다. 제자들도 이것을 궁금하게 여겨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다.

[마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세상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성경적이다. 이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끝이 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

[행1:6,7]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역시 끝에 대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이런 관심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적절한 대답을 주셨다. 성경에는 세상 끝에 대한 연대적 계시도 있고 사건적 계시도 있다. 일정한 연대를 계시하셨고, 다음으로 사건에 대한 계시를 주시므로 예언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

## 2. 끝에 대한 연대적 예언

[단12:6,7]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기로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만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면 끝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세 때 반 동안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기간이 끝나면 끝이 된다는 것이다. 세 때 반, 곧 1260일은 AD 538년에 시작하여 교황 피우스6세가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프랑스 감옥에 갇히면서 끝이 났다. 이것은 이미 공부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1260년 기간이 끝이 난 1798년부터 끝이 시작된 것이다.

[마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질문한 “끝”은 마태가 “순텔레이아(συντελεία)”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끝을 가리키는 텔레이오스에 순이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순(συν)”은 “함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함께 하는 끝이다. 다시 말하면 기간이 있는 끝이라는 말이다. 즉 끝 기간을 뜻한다. 기간은 시작과 끝이 있다. 예수님은 끝의 시작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마24:6-8]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끝은 아니니라”의 “끝”은 “텔로스(τέλος)”이다. 이것은 순텔레이아의 끝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씀들에 비추어 생각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의 끝에 시작하는 말세는 끝 가기간의 시작을 뜻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1798년에 끝 기간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 텔로스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마24:21,22]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환난 기간을 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이 전무후무한 환난은 환난의 심하기를 뜻하기 보다는 환난의 기간을 뜻하는 쪽에 중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닥친 1260년간의 환난이다. 정말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데.

그런데 이 환난 기간을 감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 예언된 기간은 1798년에 끝이 나게 되어 있었는데,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면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선포함으로 핍박받는 종교와 신앙이 미국으로 피난가면 핍박이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22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졌다. 이때부터 역사의 주류가 미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참된 경배를 두고 대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다.

아무튼 역사적 연대로 말세의 시작은 1260년 기간이 끝나는 1798년부터 인 것이다.

### 3. 종말 때가 된 것을 드러내는 징조들

제자들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셨다. 그 징조들은 사회적 징조, 국제적 징조, 종교적 징조, 천연계의 징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복음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살펴보자.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마 24:5, 11, 23, 24)

AD 30~7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으며 AD 130년의 발 코크바(Bar Cochba)는 하나의 거짓 그리스도였고, 그가 유대 독립을 부르짖으며 로마를 반역한 반란은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하는 기회도 되었다. 이런 일을 내다보신 주께서는 환난의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지장 받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마 24:20).

오늘날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계 처처에 많다.

#### ②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다.(마 24:6)

#### ③ 처처에 기근이 있다.(마 24:7)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⅓가 영양실조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기 보다는 현실에 겪고 있는 사실이다.

#### ④ 처처에 지진이 있다.(마 24:7)

현재 우리는 이 예언이 얼마나 실감 있게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지 오히려 전율을 느낄 지경이다.

해마다 지진이 증가하고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세기에 파괴적인 지진이 15회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16세기에는 253회로, 18세기에는 640회, 19세기에는 2116회로, 20세기부터는 매년 일만여회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에 파괴적인 지진만도 매년 몇 건씩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현 시대에 일어난 연쇄 지진 등은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 ⑤ 처처에 온역이 있다.(눅 21:11)

새로운 병이 세월 따라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발달되는 과학의 기술이 일어나는 병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하여 전염이 빨리되어 병은 처처에 많아지지만 한다. 사단은 치명적인 병균을 공중에 뿌린다(창투 589). 조류 독감은 새로운 위협이다. 예전에는 새나 짐승의 병이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일들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직 창조한 음식을 먹도록 권고하신 것이다.

#### ⑥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마 24:9)

공산주의의 핍박과 그보다 못지않게 신학사상의 변질로 진리가 핍박을 받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복음주의와 민족주의의 마찰로 인한 핍박도 현대의 특색이기도 하다.

#### ⑦ 죄가 성하여진다.(마 24:10~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그 결과로 도덕적 부패가 세상에 넘치고 있음을 본다. 그래서 교회까지라도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

#### ⑧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다.(마 24:29)

1780년 5월 19일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밤에 달이 꾀뵤이 되어 빛을 내지 아니하였고, 1833년 11월 13일에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하늘 권능들이 흔들린 것이다. 이런 일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심해지며, 별 소나기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위에 열거한 사건들이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은 몇 가지 조건으로 그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시기의 적절성과 사건의 순서와 지리적 요건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지진이 나고 별 소나기가 쏟아지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아도 이 징조 예언의 성취가 아닌 것이다.

예수께서 예언하신대로 이것은 ‘그날 환난 후’라는 시기가 일치해야 한다. 그 환난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환난이다. 그리고 사건의 순서는 예언된 대로 지진과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과 별들이 떨어지는 순서이어야 한다. 마태복음의 이 예언은 계시록 6장에도 예언되었다(12, 13). 그 순서는 동일하다. 요엘의 예언 순서도 동일하다(욥 2:31). 지리적 위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징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큰 환난 후는 1700년대 후반에 끝이 났다. 그때 세상의 여러 나라들은 하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 징조로 깨닫기 보다는 나라에 어떤 길흉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고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리적 지역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사는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리적 적절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스본 지진과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것과 별들이 떨어지는 천연계의 징조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 ⑨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는다.(눅 21:25, 26)

오늘날 온 세상은 평화를 부르짖으나 평화가 없다. 전전긍긍하는 세대이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욥 3:10)고 하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 기절할 형편에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 국제 무역회관의 폭파 후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세계 처처에 테러의 공포가 휩쓸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실감하게 한다.

#### 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마 24:14)

예수님의 재림, 곧 이 지구의 종말은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야 이른다.

#### ⑪ 노아의 때와 같다.

[마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상생활에 몰두함으로 세상에 임할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를 지적하신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의 전반적인 상태로 포함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노아 때로 가 볼 필요가 있다.

[창6:11,12]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悖壞)와 강포(強暴)가 노아 때의 사회적 특징이었다. 패괴는 어그러지고 무너졌다는 뜻이고 강포는 폭력을 뜻한다. 패괴라고 번역한 원어는 “샤하트(tj'v;)”인데,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는 뜻이다. 도덕적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주님의 표현 안에는 그렇게 하는 상태가 샤하트 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말이다. 강포는 “하마스(sm;j)”인데,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뜻하는 말이다. 다른 하

나의 사실은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 ⑫ 롯의 때와 같다.

[눅17:28-30]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었다. 먹고 마시고는 일상생활의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징조로서 식도락이나, 폭식폭음이 일상화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사고팔고는 쇼핑에 몰두하는 삶의 모습을 포함한다. 심고 집을 짓는 것은 인구 증가와 관계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역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로 가볼 필요가 있다.

[창19:4,5]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은 성도착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는 말은 “야다([d'y:])"인테 창세기 4장1절에는 동침이라고 번역된 말이다. 소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동성애자들이었다.

재림 전에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지금은 참으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사회현상이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 ⑬ 도덕적 인간관계의 징조

[딤후3:1-5]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날 세상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를 잘 나타낸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있을 현상이다.

#### ⑭ 노동계의 부조리

[약5:1-5]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값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값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노동쟁의를 뜻하는 말일 수 있다. 지금 노동현장의 상태이다.

#### ⑮ 종교계의 징조

이것은 이미 작은 뿔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이것이 다 종교적 징조이다. 신자 개인의 상태도 예언되어 있다.

[눅18: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신자 개인의 믿음이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을 떠나고 정서와 감각에 호소하고 있다. 부흥 현상은 복음을 좇아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인기 팝송 가수들의 공연에 참가하여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은 복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경험으로 부흥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무엇보다도 천연계의 징조에 대하여 유의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성취된 징조이다. 남은 것은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리고 섬들이 제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재림하실 그때 있을 현상이다.

[계6:12-14]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런 징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상태이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격이 바로 재림을 맞을 인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요일2:2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잠시라도 주를 떠나지 않고 주 안에 있도록 하자.